

## 노아의 믿음 120년의 망치 소리

히11:7

미국 다녀온 이후 창세기 집필, 거의 다 마무리하였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등 믿음의 사람들 연구 히브리서 11장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함. 11장은 흔히 '믿음 장'이라 불린다. 그 첫 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뒤에는 그 정의가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움직였는지를 보여 준다. 먼저 1-2절을 읽어 보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히 11:1-2), 세상 창조(3), 아벨(4), 에녹(5-6) 등 살펴봄

오늘 < > 7절을 중심으로 1-2절의 실체와 증거, 좋은 평판 노아 시대로 돌아가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7절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 11:7)

### 믿음의 정의(히 11:1)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두 마디로 정의한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다(hope)의 명사는 소망(hope)

세상의 소망은 그 토대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재물, 사람의 권세, 사람의 지식, 사람의 건강 등이 토대가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재물은 흩어지고 권세는 옮겨 가며 지식은 잊히고 건강은 무너진다. 다 죽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에는 참된 실체가 없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믿음은 그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실체로 여긴다. 왜?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 비가 온다, 홍수가 임한다, 심판이 있다.

노아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한데 묶인 것이다. 이 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정의는 글로만 머무를 때는 추상적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정의를 던지자마자 곧바로 한 사람의 일생을 펼쳐 보인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이다. 오늘 우리는 그중 노아의 일생을 통해 11장 1절이 말한 그 믿음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아 당시 세상의 상태

노아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세상이 어떠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다. **창6:1-2**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같은 표현이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욥기 38장 7절에도 나오며 이들은 천사들이다.

노아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자기들의 처음 신분과 거처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였고, 그 결과로 거인 종족이 태어났다. 본문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말한다. **창6:4**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결합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다. 창조 질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침범이었다. 영으로 지어진 천사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떠나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류의 경계를 무너뜨린 일이었다. 그 결과는 처참했다. **베드로후서 2:4-5**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 2:4-5)

유다서도 같은 사실을 증언한다(유 6).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합으로 인해 인간 사회는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거인 종족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곧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즉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이 비정상적 결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부패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창세기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육체'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된다. 짐승들조차 자기 길을 부패시켰다. 곧 사람 짐승 날짐승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창조 때 정해 주신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전락했다.

그 결과는 사람 마음의 완전하 부패이다. **창 6:5**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창 6:5)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품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전적으로 악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상상이 끊임없이 악할 뿐이었다.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노아가 태어나 자라고 살아간 세상이었다. 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폭력이 일상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하기만 한 세상, 짐승들도 사람을 공격하고 모든 것이 정상 궤도를 벗어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던 그 시대 한가운데에 노아 한 사람이 있었다. **창6:8**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구절이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 찬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창6:9**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창 6:9)

여기서 '완전하였다'는 표현은 노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도덕적, 신앙적으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것이 무대이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 2.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여기서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노아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노아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첫째, 그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 창세기 2장은 노아 시대 이전의 지구 환경을 이렇게 기록한다. "주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창 2:5-6**)

홍수 이전의 지구는 비가 아니라 안개로 적셔지는 환경이었다. 궁창 위의 물 곧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수증기층으로 인해 온실 같은 기후가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이 잠긴다는 말을 들었다(창6:17).

둘째, 그는 홍수를 본 적이 없었다. 노아 이전에는 누구도 전 지구적 대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다. 그는 배를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다.

"너는 고펠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삼백 큐빗이요, 너비는 오십 큐빗이며 높이는 삼십 큐빗이니라."(창 6:14-15)

방주의 길이는 약 135미터, 너비는 약 22.5미터, 높이는 약 13.5미터에 달했다. 오늘날 대형 화물선에 맞먹는 규모이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다. 구체적인 설계, 3층 구조, 안에는 방들이 있고 위에는 창이 있고 옆에는 문이 있었다. 이것은 배를 본 적도, 만들어 본 적도, 항해를 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아가 이 경고를 받았을 때는 그가 약 480세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세기 5장 32절은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7장 6절은 그가 600세에 홍수를 맞이했다고 기록한다. 그 사이가 100년이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인간 수명의 한계가 아니라 심판까지 남겨 두신 유예 기간이다. 이를 역산하면 노아가 이 경고를 받은 시점은 그의 나이 약 480세 무렵, 곧 세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아직 아들도 없을 때, 가족이라곤 자기와 아내 둘 뿐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은 자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전 지구적 심판이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이다. 노아는 보지 못한 비, 보지 못한 홍수, 보지 못한 심판을 모두 믿음으로 끌어안아야 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가지 약속도 주셨다. 창6: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또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창 6:18)

여기서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보증하신 약속이다.

노아는 자기가 보지 못한 것 두 가지를 붙들어야 했다. 곧 보지 못한 심판과 보지 못한 구원이다. 이 두 가지를 받쳐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

### 3. 노아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노아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이다. 이 부분이 노아의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먼저 '두려움으로 움직여'라는 표현부터 살펴보자. 이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한 두려움이 아니다. 만일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노아는 방주를 짓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노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두려움이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의 자세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를 움직였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예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곳은 바닷가가 아니었다. 강가도 아니었다. 노아의 방주가 후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는 사실(창 8:4)을 고려하면, 그가 방주를 만든 장소는 산지와 가까운 내륙 지역이었

을 가능성이 크다. 곧 노아는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길이 135미터의 거대한 구조물이다. 오늘날의 축구장보다 더 길다. 높이는 약 5층 건물에 해당한다.

이런 거대한 상자를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지어 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엇이냐 했겠는가?

'노아, 자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았던 말인가?'

'홍수가 온다고? 어디에서 온다는 말인가? 이 들판 한가운데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그 배를 왜 여기서 만드는가? 바다도 강도 없는 이 마른 땅에서?'

조롱은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는 조롱을 받으며 나무 상자 배를 지었다. 120년이다. 한번 그 길이를 곱씹어 보라.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은 약 900세,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노아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배를 짓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노아를 그 시대의 정신 나간 늙은이쯤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저 노아라는 사람, 평생을 저 배 하나에 매달려 살더니 결국 그 배 안에서 늙어 죽겠구먼.'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망치를 들었다. 매일 고렐나무를 다듬었다. 매일 역청을 칠했다.

매일 방의 구조를 짜 올렸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뿐이었다.

그 말씀이 그의 망치를 들게 했고 그의 손을 움직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보아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또 있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다. **벧후 2:5**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 2:5)

노아는 단지 배만 지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의의 선포자'였다. 그는 망치를 들고 일하는 동시에 입을 열어 그 시대를 향해 회개를 외쳤다. 120년 동안 외쳤다.

또 다른 본문은 이렇게 기록한다. **벧전3:19-2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지하 감옥에 내려가 직접 설교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노아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의미이다. 노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 시대를 향해 외치셨다.

생각해 보라. 망치질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외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비웃는다. 다시 망치질을 한다. 또 멈추고 외친다. '회개하라! 살 길은 이것뿐이다!' 다시 비웃음이 돌아온다. 다시 망치질을 한다. 이렇게 120년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 외에는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120년 동안의 설교가 단 한 영혼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시대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한다. 노아의 믿음은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움직였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한다.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모두 노아의 믿음에 동참했다.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의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겔14: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겔 14:14)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함께 믿고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도 가정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켰다. 그 시대는 일부다처가 만연한 시대였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두었고(창 4:19),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지경이었다(창 6:2). 그러나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모두 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정확히 여덟 명, 곧 네 쌍의 부부였던 것이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결혼의 질서를 지켰다. 한 남자에 한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질서이다(창 2:24). 노아의 믿음은 단지 큰 배를 짓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가정의 작은 일상까지 다스리는 믿음이었다.

이러한 120년의 일생을 한 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다. **창 6:9**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창 6:9)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 표현은 에녹(창 5:24)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이며, 창세기 전체에서 이 표현으로 묘사된 인물은 오직 두 사람뿐이다. 걷는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한 걸음이다. 노아는 단번에 결단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사람이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다.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황량한 들판에서, 120년 동안, 비웃음의 한가운데에서, 가족을 데리고,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거대한 상자 배를 지었다.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실재였다.

#### 4.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함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어 말한다. '노아는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였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곧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그 일이다. 노아의 방주 자체가 그 시대를 정죄했다. 120년 동안 그 거대한 배는 입을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심판이 온다! 들어오라! 살 길은 이것뿐이다!'

방주는 노아가 잠들었을 때에도 외쳤다. 그 거대한 상자는 그 자체로 매일 하나님의 경고를 시각화한 설교였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막을 수는 있어도 방주의 존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아가 짓고 있는 그 배 옆을 지나가며 비웃을 뿐이었다. 마침내 이레 후에 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창 7:4), 노아의 가족 여덟 명과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다. **창7:16**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창 7:16)

방주의 문을 닫은 존재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 짧은 한 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른다.

120년 동안 열려 있던 그 문이 마침내 닫혔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으셨다.

문이 닫힌 그 순간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문 안은 생명이었고 문 밖은 죽음이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한번 닫힌 문은 끝까지 닫혀 있었다.

이것이 노아가 그 세상을 정죄한 방식이다. 노아는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않았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의가 그 시대 전체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드러내어 정죄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가리켜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라고 부른다(벧후 2:5). 여기서 '여덟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담으로부터 여덟 번째 세대라는 뜻이 아니다. 족보를 따라가면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열 번째 세대에 해당한다. '여덟째 사람'이라는 표현은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과 관련된 것이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 자신과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합해 모두 여덟 명이었다. 노아는 그 가운데 자기 가족 일곱 명을 먼저 방주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방주에 탄 여덟 번째 사람이었다.

그가 들어간 뒤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다.

## 5.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한 마디 안에 노아의 일생 전체가 결산된다.

그리고 이 한 마디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정의로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노아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단지 홍수를 피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의였다.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킨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바라본 실체였다.

그런데 그 의는 노아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었다. 그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바라던 의는 자기 행위로 만들어 낸 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와야 하는 의였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한다. 노아는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가 바라던 의의 실체는 곧 그의 믿음이었다.

이 점에서 노아는 아브라함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롬4:3**

"성경기록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롬 4:3)

같은 원리이다. 의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다.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비와 홍수만이 아니었다. 그가 보지 못한 더 깊은 것은 따로 있었다. 곧 장차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어질 의의 완성이었다.

노아 시대로부터 십자가까지는 약 2,400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노아는 그 의의 성취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 보지 못한 의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그가 망치를 들 때마다, 그가 회개를 외칠 때마다, 그의 모든 행보가 곧 보이지 않는 의의 증거였다. **히11:13**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아야 한다. '상속자'라는 단어이다. 상속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상속자는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약속에 따라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하나님의 아들)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다.

시작도 은혜였고 마침도 은혜였다. 그 사이를 채운 것이 믿음이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창 8:20**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창 8:20)

성경에서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구절이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그는 새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헌물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창 8:21**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창 8:21)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물을 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어서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다(창 9:13).

이것이 의의 상속자의 모습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았고, 경고를 받았고, 설계를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마침내 의를 받았다. 그가 한 일은 그 모든 것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의 응답이 곧 의의 상속의 통로가 되었다.

## 6. 마지막 때 노아의 때 — 이번에는 불의 심판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노아의 이야기는 단지 옛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노아의 때를 마지막 때의 모형으로 말씀하셨다. **마 24:37-39**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팔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핵심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무지의 원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강박함이었다. 그들은 들었으나 듣지 않았고 보았으나 보지 않았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팔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다. 노아 시대처럼 오늘도 의의 선포자들이 일어나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비웃거나 무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다르다. 다음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다(창 9:11).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한다. **벧후3:5-7**

이번에는 불이다. 노아 시대에는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마지막 때에는 위에서는 불이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원소들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고 철저할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 시대의 정죄였듯, 마지막 때의 불은 마지막 시대의 정죄가 될 것이다. 그날에는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단 하나의 피난처가 있다. 노아 시대에 방주가 그러했듯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다(창 6:14). 흥미롭게도 여기서 사용된 '역청'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자주 나오는 '속죄'라는 단어와 히브리어에서 같은 어근을 가진다. 그 기본 의미는 '덮다'이다. 방주의 역청이 심판의 물을 막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 보호한다. 노아 시대에 사람을 살린 유일한 길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듯 오늘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방주의 문을 주께서 친히 닫으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노아처럼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결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속과 경고

믿음은 그것들을 실체와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 배를 지었다. 왜?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실체요 증거였다.

우리도 노아처럼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자. 우리도 노아처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자. 우리도 노아처럼 매일 망치를 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우리도 노아처럼 가족을 이끌고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자.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자.

그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받는 사람들이 되자. 어떻게? 믿음으로